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해체 보수중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1과와 사리장엄.

## “낙산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오셨네”

### 해수관음공중사리탑 해체 보수중 발견

양양 낙산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점선안)와 사리함 등 사리장엄이 발견됐다고 5월 18일 밝혔다. 이번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폭 0.8cm, 높이 0.6cm 크기로 유백색이며 광채를 내고 있어 불자들이 감복시키고 있다.

낙산사 주지 정범 스님은 “화마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중창불사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가 출현해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며 “부처님 진신사리는 친견 법회 이후 다시 사리함에 봉안할 예정이며 사리장엄은 문화재로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글·사진/양양=김두식 기자

## 절할 때 왜 손바닥 들죠?

### 삼배·손동작 등 통일된 ‘정의’ 없어 제각각 조계종 교육원 ‘절 수행 지침서’ 내달 발간

서울에 사는 불자 이모(33)씨. 이씨는 주말 지인과 함께 산사를 찾았다. 그는 지인을 따라 스님을 뵈고 인사를 드리다 당황했다. 자신은 스님에게 한배를 올린 반면 지인은 삼배를 올린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영거주춤한 자세로 스님의 눈치를 살피지만 했다. 부산에 사는 중학생 박모(15)군. 어머니를 따라 법당에 들어간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 절을 할 때 양 손바닥을 펴서 들어올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양 손바닥을 바닥에 대는 것이었다. 어머니께 그 이유를 물었지만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늘 하는 삼배(三拜). 그러나 삼배의 기원과 의미,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이것이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조계종이 펴낸 신도교재 <불교 입문>에 따르면 “절은 삼보(三寶: 佛法僧)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하심(下心)의 수행 방법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삼보에 예경을 올릴 때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큰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오체는 몸의 다섯 부분인 두 팔꿈치와 두 무릎, 이마를 말한다. 또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서서 합장 반배하고, 실내에서는 삼배의 예를 올려야 한다”며 “따라서 1배를 하기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삼배는 삼보에 대한 예경과 더불어 삼독(三毒: 貪·瞋·癡)을 끊고 삼학(三學: 戒·定·慧)을 기른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삼배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조계종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삼귀의계(三歸依戒)에서, 심만촌 동방불교대학 부학장은 <대법천왕묘불경의경>에서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3번 하는 것에서 삼배의 기원을 유추하기도 하지만 문헌상의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 사실상 어렵다. 또 사람에게 따라서는 부처님께만 삼배를 할 뿐 스님에게는 한배만 하면 된다 주장도 있다. 삼배를 할 때 양 손바닥을 하는

로 펴고 귀 높이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불교입문>에서는 이를 접촉례(接足禮)라고 일컬으며 엮드려 절하면서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존경을 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고종에서는 절을 할 때 양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한다. 이와 관련 종단을 막론하고 불교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절을 할 때 손을 하늘로 펴고 귀 높이로 올리는 것은 일제때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배나 절을 하는 방법 등을 비롯해 불교계 각종 의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통일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교육원이 오는 6월 <절 수행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알려져, 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질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



시방세계 9면 조계사 '도로 가는 버스'



도반의 향기 17면 '119 선생님' 안시장 소방관

수목장 불교계 현황·과제 4면 부처님제사 사리塚 회향 7면

## 공원입장료 폐지 법안 국회로

### 장복심 의원 18일 제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5월 18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단순 등산객에게까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해 그동안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며 “입장료 폐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여가선용 활성화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국립공

원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사용료의 징수’로 한정, 입장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 또 제42조에서 징수된 사용료 등은 징수목적에 맞도록 자연공원의 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해 국립공원관리 이외에 문화재 관리·보수비용 사용을 허용한 조항도 수정·삭제했다. 법 개정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총 70명. 이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16명) 소속의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어 상임위 통과를 낙관적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성목 스님은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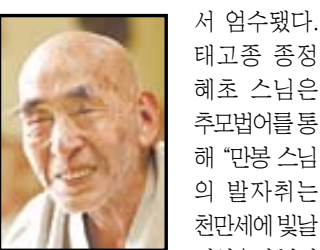
### 아들아, 네 불심은 아직 뜨겁구나!

5·18 민주항쟁 26주년을 맞은 광주 국립 5·18 묘역에서 故 김동수 열사의 부모는 아들의 비와 묘를 쓰다듬으며 아들을 그리워했다. 5·18 민주항쟁 당시 대불련 전담지부장이었던 김동수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했다. **관련기사 7면** 사진=이준엽 기자

## 단청장 만봉 스님 입적

### 21일 태고종단... 선암사서 다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만봉 스님(사진)이 5월 17일 오전 서울 신촌 봉원사 운수각에서 입적했다. 세수 97세, 법랍 81세. 한국 전통 불화(佛畵)의 맥을 계승한 불교미술의 거장 만봉 스님은 일반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영결식은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태고종 종단장으로 열렸으며, 다비는 이날 오후 5시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 연화대에



서 업수됐다.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만봉 스님의 발자취는 천만세에 빛날 것이오니 부디 다시 오시어 증생을 보살피소서”라며 열반을 애도했다. **관련기사 8면** 김주일 기자

## 달라이 라마 한국정부에 비자 신청

달라이 라마가 5월 16일 인도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행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와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신청이다.

달라이 라마가 한국정부에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티베트 망명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한국 방문을 여러 차례 검토한 적은 있지만, 비자신청은 하지 않았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 ‘2006 군포교 함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병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함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원장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품질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2004-8207, 8210** (현대불교 영영2팀)